

RICHARD
YONGJAE O'NEILL
WINTER CONCERT

CREEDIA
THE GIFT

THE BAROQUE NIGHT



연주자에 따라 감동의 깊이는 다르기에

당신의 소중한 자산,
자산관리 경험의 깊이가 다른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GOLD & WISE

KB 프라이빗 बैं킹

One-Stop 토탈 자산관리 솔루션 | KB WM스타자문단의 자문 서비스 | 고품격 라이프케어 서비스

• GOLD&WISE 전용 고객센터 1833-6704 (전국 PB센터 네트워크 및 상담예약 안내)

2021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더 바로크 나이트

Richard Yongjae O'Neill

Winter Concert

The Gift : The Baroque Night

2021년 12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2021년 12월 25일(토) 오후 2시

롯데콘서트홀

7:30PM, Friday, December 24, 2021

2PM, Saturday, December 25, 2021

Lotte Concert Hall

비올라,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Viola

첼로, 문태국

Taeguk Mun, Cello

테너, 존노

John Noh, Tenor

지휘, 정한결

Hangyul Chung, Conductor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LOTTE CULTUREWORKS

타이틀협찬 GOLD & WISE
KB 프라이어티 펀딩

오퍼레이션협찬  KB증권

코렐리 이탈리아
1653-1713

합주협주곡 사단조 ‘크리스마스 협주곡’

- I. 생기있고 빠르게 - 중후하고 느리게
- II. 빠르게
- III. 차분히 느리게 - 빠르게 - 차분히 느리게
- IV. 생기있고 빠르게
- V. 빠르게
- VI. 자유롭게 연주하는 목가. 충분히 느리게

비발디 이탈리아
1678-1741

두 대의 첼로와 현을 위한 협주곡 사단조 | 리처드 용재 오닐, 문태국 (비올라와 첼로로 연주)

- I. 빠르게
- II. 충분히 느리게
- III. 빠르게

코렐리 이탈리아
1653-1713

라 폴리아 | 리처드 용재 오닐, 문태국

중 간 휴 식

헨델 독일
1685-1759

<메시아> 중 ‘서곡’ <메시아> 중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존노

바흐 독일
1685-1750

<마그니피카트> 중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 존노

퍼셀 영국
1659-1695

<오이디푸스> 중 ‘음악은 잠시동안’ | 존노

프랑크 프랑스
1822-1890

<3성부 미사> 중 ‘생명의 양식’ | 존노

카치니 이탈리아
1551-1618

아베 마리아 | 리처드 용재 오닐

텔레만 독일
1681-1767

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 리처드 용재 오닐

- I. 충분히 느리게
- II. 빠르게
- III. 느리게
- IV. 급하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찾아서
미래를 위해 투자, 보험까지 챙겨주고
소비습관을 분석해 자산도 관리해주는
나만을 위한 새로운 금융세상

2021년 12월
KB가 초개인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No.1 디지털 금융플랫폼 KB

KB금융플랫폼

KB금융그룹은 'KB스타뱅킹', 'M-able', '리브 Next', 'KB Pay' 등 금융플랫폼부터 'KB부동산', 'KB차차차', '헬스케어' 등 비금융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더 간편하고(Simple), 더 빠르고(Speedy), 더 안전한(Secure)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KB증권 | KB손해보험 | KB국민카드 | KB캐피탈
푸르덴셜생명 | KB자산운용 | KB생명보험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신용정보

A. Corelli Italy
1653-1713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 I. Vivace - Grave. Arcate, sostenuto e come stà
- II. Allegro
- III. Adagio - Allegro - Adagio
- IV. Vivace
- V. Allegro
- VI. Largo. Pastorale ad libitum

A. Vivaldi Italy
1678-1741

Concerto for two celli and strings

in g minor, RV 531 | Richard Yongjae O'Neill, Taeguk Mun

- I. Allegro
- II. Largo
- III. Allegro

A. Corelli Italy
1653-1713

La Folia, Op. 5 No. 12 | Richard Yongjae O'Neill, Taeguk Mun

I N T E R M I S S I O N

G. F. Händel Germany
1685-1759

Overture from Messiah, HWV 56

'Comfort ye' from Messiah | John Noh

J. S. Bach Germany
1685-1750

'Deposuit potentes' from Magnificat, BWV243 | John Noh

H. Purcell England
1659-1695

'Music for a While' from Oedipus, Z. 583 | John Noh

C. Frank France
1822-1890

'Panis angelicus', FWV 61b from Messe à trois voix, FWV 61a | John Noh

G. Caccini Italy
1551-1618

Ave Maria | Richard Yongjae O'Neill

G. P. Telemann Germany
1681-1767

Viola Concerto in G Major, TWV 51:G9 | Richard Yongjae O'Neill

- I. Largo
- II. Allegro
- III. Andante
- IV. Presto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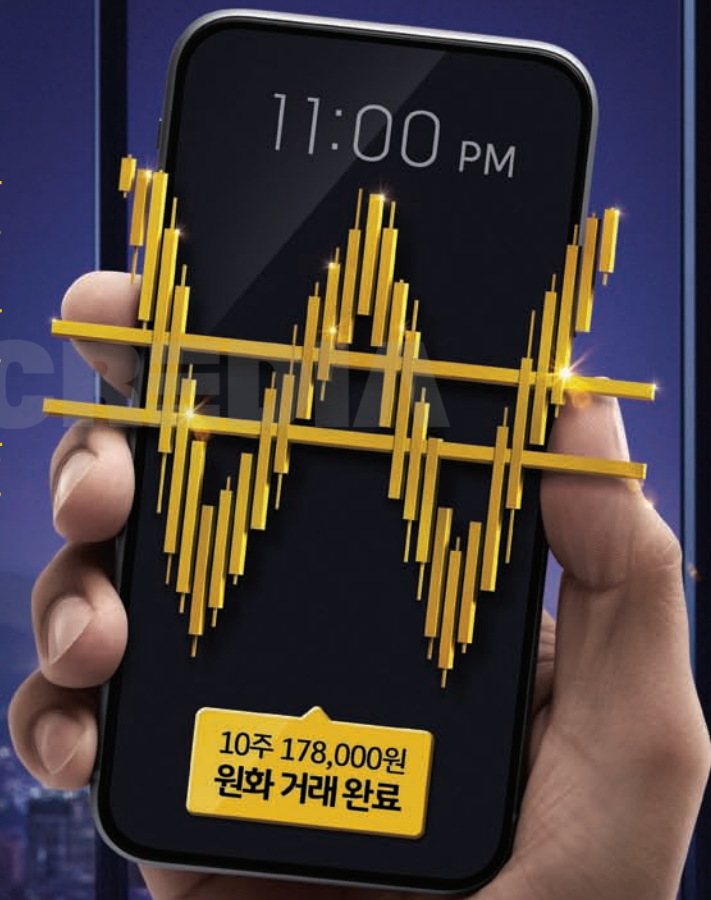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밤 11시, 해외주식 사고 싶은데 달러가 없다면?
환전 없이 바로 사는
KB증권 글로벌원마켓

₩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0원
매매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환전 없는
해외주식
시작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783호(2021년 10월 15일~2022년 10월 14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미국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051% 제비용 별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당일거래 가능국가: 미국, 홍콩, 일본

‘바로크’(baroque)란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barocco’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종교적인 숭고함이나 고대 그리스의 고전과 스콜라 철학이 중심에 있는 르네상스의 서사와는 달리, 16세기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화려하고 복잡한 미술품들은 인간의 직관적인 감각을 자극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감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처럼 짜인 비례미를 존중하는 고전적 입장에서 이 새로운 예술은 일그러진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 중심의 바로크 예술은 인문주의를 업고 여러 분야에 빠르게 파고들었고, 곧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 예술의 이유이자 내용이 되었습니다. 음악도 이 영향을 받아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리처드 용재 오닐이 준비한 선물 ‘더 바로크 나이트’에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
합주협주곡 사단조
‘크리스마스 협주곡’

Arcangelo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아르칸젤로 코렐리(1653-1713)의 <크리스마스 협주곡>은 가사 없이 성탄을 기념하는 흔치 않은 기악곡입니다. 이 곡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에 ‘12개의 합주협주곡, Op. 6’에 묶여서 출판되었는데요, ‘합주협주곡’이란 하나가 아닌 여러 악기가 협연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이 곡에서는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가 독주악기군으로 설정되어, 독주악기군과 전체의 대립과 조화로 흥미롭게 진행되죠. 특히 여덟 번째 곡에는 ‘크리스마스 밤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글이 적혀있어서 ‘크리스마스 협주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섯 악장이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있는데요, 빠르기와 박자, 조성이 자주 바뀌어서 당대의 음악과 비교하여 대단히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전개를 들려줍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두 대의 첼로와 현을 위한 협주곡
사단조 (비올라와 첼로로 연주)

Antonio Vivaldi
Concerto for two celli and strings
in g minor, RV 531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은 비발디의 곡으로서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그는 500곡이 넘는 협주곡을 포함하여 무려 800곡이 넘는 굉장한 양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놀랍게도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은 비발디의 수많은 협주곡 중 1720년대에 작곡된 단 한 곡뿐입니다! 비발디의 다른 곡에 비해 상당히 저음 지향적인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발디가 작곡에 어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악장 ‘빠르게’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2악장 ‘매우 느리게’는 폭풍을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두 여행객의 노곤함이 느껴지고, 3악장 ‘빠르게’는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오늘은 제1첼로를 비올라로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
라 폴리아

Arcangelo Corelli
La Folia, Op. 5 No. 12

코렐리의 <라 폴리아>는 1700년 1월 1일 로마에서 출판된 ‘12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5’의 마지막 열 두 번째 곡입니다. ‘라 폴리아’는 포르투갈에서 유래한 멜랑콜리한 열정이 깃든 선율로, 바로크 시대에 인기가 많아 화음 패턴을 반복하면서 자유롭게 변화하는 변주곡으로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3개의 아름다운 변주를 들려주는 코렐리의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연주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메시아> 중
‘서곡’, ‘내 백성을 위로하라’

Georg Friedrich Händel
‘Overture’, ‘Comfort ye’
from Messiah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1685-1759)의 <메시아>(1741)는 제목처럼 헨델에게 구세주와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1710년에 방문한 런던에서 오페라로 큰 성공을 거두어 놀라웠지만, 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어 오페라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빛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오페라를 포기하고 영어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품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메시아>의 서곡은 느리고 장중하게 시작하여 빠르고 경쾌하게 끝맺는 전형적인 프랑스식 서곡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테너 아코파냐토(accompagnato: 관현악 반주의 레치타티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1~3절로 너의 백성이 고난으로 벌을 다 받았으니 위로하고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마그니피카트> 중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Johann Sebastian Bach
‘Deposuit potentes’
from Magnificat, BWV243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의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는 독창과 합창, 관현악을 위한 <마그니피카트>(1723/33)에 포함된 테너 아리아입니다. ‘마그니피카트’는 예수를 잉태 중인 성모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임한 축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를 가사로 합니다. 바흐의 <마그니피카트>는 라틴어 가사로 만든 바흐의 첫 작품이기도 한데요, 존노가 부를 테너 아리아의 가사는 52절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입니다. 바이올린의 격정적인 선율과 어우러져, 극적인 내용의 가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합니다.

헨리 퍼셀
 <오이디푸스> 중
 ‘음악은 잠시동안’

Henry Purcell
 ‘Music for a While’
 from Oedipus, Z. 583

헨리 퍼셀(1659-1695)의 ‘음악은 잠시동안’은 존 드라이덴과 나다니엘 리의 연극 <오이디푸스>(1692)에 붙인 음악입니다. 퍼셀은 외국의 음악가들 차지가 되었던 영국 음악계의 자존심이었으며, 극음악 분야에 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당시 오페라의 공식 언어였던 이탈리아어가 아닌 영어를 가사로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죠. ‘음악은 잠시동안’은 다카포(da capo) 아리아로,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마칩니다. 반복되는 처음 패턴 위에, 음악이 잠시동안 고통을 잊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사를 구슬픈 선율로 노래합니다.

세자르 프랑크
 <3성부 미사> 중
 ‘생명의 양식’

César Frank
 ‘Panis angelicus’, FWV 61b
 from Messe à trois voix, FWV 61a

세자르 프랑크(1822-1890)의 ‘생명의 양식’(1872)은 ‘파바로티와 친구들’이 부른 이후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3성부 미사>(1860/65/72)의 세 번째 버전의 다섯 번째 곡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원곡은 오르간과 하프의 반주와 첼로 오블리가토(obbligato: 반주 파트에서 연주하는 선율)를 배경으로 노래합니다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로 편곡되어 독립적으로 연주되고 있죠. 가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찬송시로, 천사의 양식이 사람의 양식이 되어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먹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줄리오 카치니
 아베 마리아

Giulio Caccini
 Ave Maria

줄리오 카치니(1551-1618)의 <아베 마리아>는 애수가 가득한 서정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찬송을 올리며 죽을 때에 죄인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문인데요, 많은 작곡가들이 이 기도문에 음악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곡은 블라디미르 바빌로프(Vladimir Vavilov: 1925-1973)의 작품입니다. 1970년에 작자 미상으로 출판하고 녹음했는데요, 바빌로프가 세상을 떠나자 오르가니스트 마르크 샤킨이 새로 발견된 카치니의 작품이라고 거짓으로 발표했죠. 그리고 1987년에 이리나 아르키포바에 의해 녹음된 이후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비올라 협주곡 사장조

Georg Philipp Telemann
Viola Concerto in G Major, TWV 51:G9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1681-1767)의 <비올라 협주곡>은 바로크 시대에 극히 드문 비올라 독주곡으로서, 비올리스트에게는 매우 소중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구하고 여러 나라의 음악에 정통했던 그는 여러 지역의 양식을 혼합하는 ‘취향의 결합’(réunion des goûts)이라는 당대의 유행을 선도하여, 18세기 전반기 독일에서 바흐와 헨델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1악장 ‘매우 느리게’는 우아한 기품으로 가득하고, 2악장 ‘빠르게’는 생기 있게 연주합니다. 3악장 ‘느리게’는 멜랑콜리한 감성에 젖어 흐느끼며, 마지막 4악장 ‘매우 빠르게’는 밝고 경쾌하게 마무리합니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CREEDIA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Richard Yongjae O'Neill
Violist

CREDIA

리처드 용재 오닐은 2021년 최고의 클래식 독주악기 부문에서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과 그래미상을 모두 받은 드문 연주자 중 한 사람이다.

솔리스트로서 런던 필(블라디미르 유롭스키 지휘), LA 필(미구엘 하스 베도야 지휘), 서울시향(프랑수아 자비에르 로스 지휘), KBS교향악단,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알테 무지크 쾰른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뿐만 아니라 뉴욕 카네기 홀, 에버리 피셔 홀, 케네디 센터와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살 코르토, 도쿄 오페라시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매년 독주회를 이어오고 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카메라타 피시피카의 상주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 솔로이스츠에서는 6년간 비올라 수석과 독주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에마누엘 액스, 레온 피셔, 개릭 올슨, 메너헴 프레슬러, 스티븐 이설리스,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단, 앙상블 빈-베를린, 에네스 콰르텟 등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과 연주해 왔고 2020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타카치 콰르텟의 새로운 비올리스트로 합류하였다.

용재 오닐은 유니버설/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서 2017년까지 9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 총 200,000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눈물>(유니버설 뮤직 코리아)과 <겨울여행>(DG)은 더블 플래티넘을, <미스테리오소>(ARCHIV), <노래>(DG)는 플래티넘을 받았다. 특히 2집 <눈물>은 2006년 클래식과 인터내셔널 팝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에서 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한 MBC <안녕?! 오케스트라>와 같은 TV 다큐멘터리로 많이 알려졌고 주요 미디어가 그의 이야기와 음악 활동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음악 감독으로 있었던 앙상블 디토와 디토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클래식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에세이 <공감>(2009, 중앙북스)과 <나와 당신의 베토벤>(리처드 용재 오닐, 노승림 공저 2016, 오픈하우스)을 발간했으며, 열정적인 마라토너로서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에 참가, 완주하는 등 한국에서 그 어떤 연주자보다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음악에 관한 관심이 높은 그는 엘리엇 카터, 폴 치하라, 마리오 다비도브스키, 올리버 크누센, 조 콘도, 후앙 루오, 데이비드 텔 트레디치, 멜린다 와그너, 찰스 우리넨, 존 존 등의 저명한 현대 작곡가와 작업해왔다. 2011년에는 뉴욕 92nd Street Y 극장에서 열린 엘리엇 카터의 103번째 생일을 위한 공연에서 카터가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프레드 쉐리(첼로), 로프 솔테(바이올린)를 위해 쓰고 헌정한 현악 삼중주를 세계 초연하였다. 2012년 9월에는 LA에서 후앙 루오의 비올라 협주곡 <In Other Words>을 초연했다. 2018년에는 작곡가 레라 아우어바흐가 그를 위해 쓴 비올라 피아노 듀오를 위한 24개의 서곡을 세계 초연했다.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은 용재 오닐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사를, 줄리아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폴 뉴바우어와 도날드 맥아인스를 사사하였다. 현재 1727년 마테오 고프릴레르가 제작한 베니스 산 'ex-Trampler'와 가스파로 다 살로 'ex-Iglitzin, the Countess of Flanders'을 사용하고 있다.



CREDIA

첼리스트 문태국

Taeguk Mun Cellist

문태국은 제 15회 성정전국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2011년 제 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다. 2019년에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4위에 입상하였다.

2004년 금호영재독주회와 200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독주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다수 연주를 하며 수원시립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와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바 있다. 2014 부산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를 시작으로 교향악축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헝가리에서 열린 안익태 110주년 기념음악회 등에 참가하며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17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했으며 2019년까지는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 활동을 겸하였다.

만 4세에 첼로를 접한 문태국은 수원 일월초등학교 졸업 후 2007년 도미하였고 한국에서는 양영림,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는 클라라 민혜 김(Clara Minhye Kim)을 사사하였다. 이후 보스톤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로렌스 레서(Laurence Lesser)를 사사하였고 현재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랄프 키쉬바움(Ralph Kirshbaum)을 사사하고 있다.

(재)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문태국은 제 2회 SK케미칼 그리움 G.rium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제 1회 야노스 슈타커 상과 제 51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 수원시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크레디아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2019년 2월에 워너 뮤직 인터내셔널 Warner Music International 레이블로 데뷔앨범 <첼로의 노래>를 발매했고 현재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란 Milan 1697년산 지오반니 그란치노 Giovanni Grancino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



© SHINWOOK LEE

CREIA

테너 존노

John Noh
Tenor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 존노는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존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장학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장학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미주활동으로는 Met Live 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 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카네기홀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 뉴욕 머킨홀, 뉴욕 링컨센터, 엘리스 터리 홀, 브룩클린 National Sawdust 등 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과 연주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와 함께 <몬테베르디의 책>을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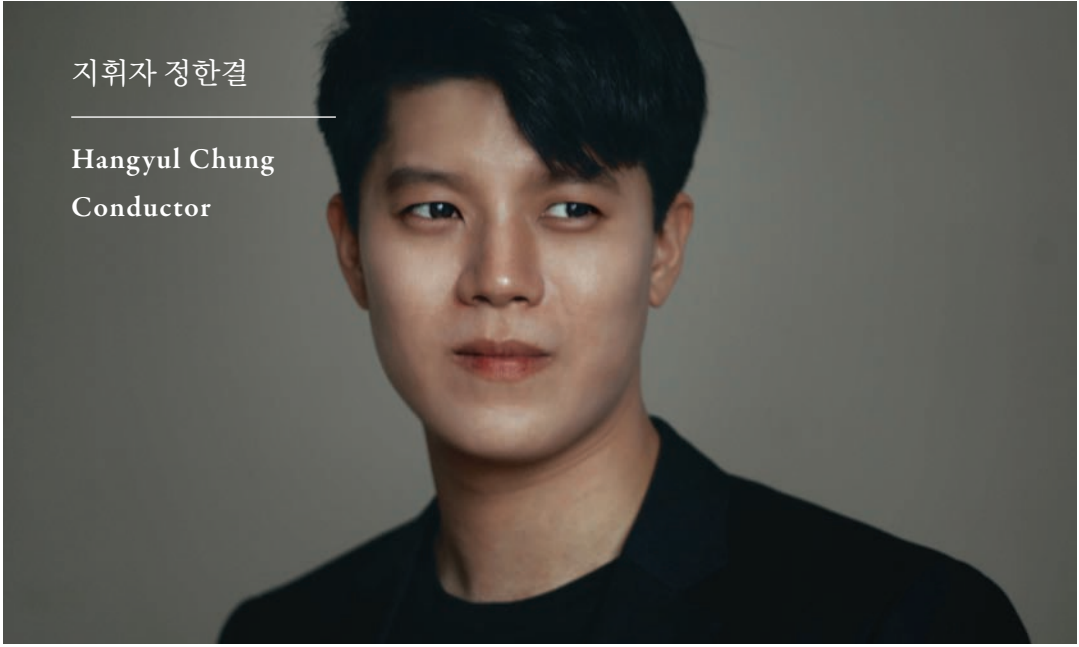
오라토리오 가수로서 미국 최초의 성당인 <바실리카 성당> 225주년 음악회에서 모차르트 C단 조 <대미사> 솔리스트로 시작해, 로씨니 <작은 장엄 미사>, 헨델 <메시아>, 바흐<마태 수난 곡> <마그니피카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등 오라토리오 가수로서 커리어를 쌓아갔다. 대표적으로 1906년부터 있었던 뉴욕의 역사적인 합창단인 The Cecilia Chorus of New York 와 카네기홀에서 모차르트 레퀴엠 테너 솔리스트로 “중창과 솔로파트에서 모두 아름다웠다” 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존노는 <팬텀싱어 3>에 참가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속한 크로스오버 팀 ‘라비딘스’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큰 호응을 받으며 최근 앨범 발매와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그룹 활동과 더불어 솔로 연주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합창>과 예술의전당의 모차르트 레퀴엠 공연에서 솔리스트로 참여하였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뉴헤이븐 심포니, 찰스턴 심포니, 예술의전당 ‘젊은 예술인 시리즈’ 등 유수의 단체와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데뷔 앨범 <NSQG>(위너클래식)를 발매하였으며 2021년 국내에서 발매된 정통 클래식 앨범 중 최고 기록인 3만장을 돌파해 멀티플래티넘을 달성하였다. 위너클래식 앨범발매 기념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단독 리사이틀을 전석매진 시키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KBS교향악단과 협연으로 단독 리사이틀-앙코르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 상반기 K-크로스오버 앨범을 통해 그의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휘자 정한결

Hangyul Chung
Conductor

지휘자 정한결은 세계적 권위의 독일 국제 지휘자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종 결선에 진출하여 3위와 청중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으며, 현시대의 수많은 정상급 지휘자들을 배출한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 음악 협회 ‘지휘자 포럼’의 멤버를 역임하였다. 독일에서는 WDR 쾰른 방송교향악단, 도이치 방송교향악단,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라인란트팔츠 국립 오케스트라, 하이델베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 로이틀링겐 필하모닉, 바덴바덴 필하모닉, 남서독일 포르츠하임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지휘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시립교향악단, TIMF 앙상블 등을 객원 지휘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 <마술피리>,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 정기오페라 <루크레치아의 능욕> 등을 지휘했으며, 2021년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나부코>, 2017년 예술의전당 주최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부지휘 등으로 오페라 경험 또한 쌓았다. 현대음악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다양한 단체들과 작업하면서 세계적인 작곡가 니코 물리의 실내악 작품을 독일 초연, 해리슨 버트위슬의 오보에 사중주를 한국 초연하기도 했다. 도이치 방송교향악단과의 공연에서는 극강의 난이도로 잘 알려진 리게티의 피아노 협주곡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언론과 관객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해당 연주 실황은 독일 자를란트 방송국 라디오에서 방송되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휘자 포디엄에 대표로 참가하였고, 두 차례 모두 우수 지휘자로 선정되어 프로 오케스트라들과 공연하였다. 또한, 마에스트로 요하네스 슈래플리의 초대로 그의 공연을 대신 넘겨받아 만하임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하였다.

정한결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작곡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 지휘과 대학원 석사 및 Postgraduate 과정을 졸업하였다.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즈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홀 키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와 같은 필름콘서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 <모가디슈>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인간 인간 해체 재기 레미



CREEDIA

리움미술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04348

www.leeum.org

LEEUM

2021. 10. 8 — 2022. 1. 2

Heather Dewey-Hagborg, *Stranger Visions*, 2012-2013.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 Heather Dewey-Hagborg. Courtesy of Fridman Gallery, NY. Photo: Han Do Hee
George Segal, *Rush Hour*, 1983. Bronze, 183 × 244 × 244 cm. Leeum Museum of Art © The George and Helen Segal Foundation. Photo: Han Do Hee
Andy Warhol, *Forty-five Gold Marilyns*, 1979. Acrylic paint and silkscreen ink on canvas, 205 × 307 cm. Leeum Museum of Art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Human > questions



I sincerely hope that you all are healthy and happy,
surrounded by family and good cheer during this holiday season.

- Richard Yongjae O'Neill -

크리스마스 시즌,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리처드 용재 오닐 -



CREEDIA

문태국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주해 드리는 음악이 위로, 평안, 행복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 문태국 -



CREDIA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 존노 -

사랑,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CREZIA
MUSIC&ARTISTS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2

LOVE SONGS

“세상의 모든 사랑 노래”



1.12 | 2.9 | 3.16 | 4.13 | 5.11 | 6.8 | 9.14 | 10.19 | 11.9 | 12.14 매월 (수) 오전 11:30 롯데콘서트홀

대니 구, 천지윤, 한수진, 양인모, 조재혁, 존 노, 최성훈, 홍진호, 박현수, 리처드 용재 오닐 외

예매 |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롯데콘서트홀 1544-7744

티켓 | 전석 35,000 원

OD COMPANY
and
LOTTE ENTERTAINMENT presen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JEKYLL & HYDE

CREDIA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2021.10.19 ~ 2022.05.08 샤롯데씨어터

류정한 홍광호 신성록 윤공주 아이비 선민 조정은 최수진 민경아 김봉환 윤영석 외

주최 SBS 제작 OD COMPANY LOTTE ENTERTAINMENT TBC TJB 후원  한국문화재단  OPEN REVIEW  YES24 티켓  인터파크 티켓  TMON 서도태씨어터 문의 1588-5212

Conceived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usse Music by Frank Wildhorn Orchestrations by Kim Scharnberg Arrangements by Jason Howland
Produced by Chunsoo Shin Directed/Choreographed by David Swan

JEKYLL & HYDE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All authorized production materials are also supplied by MTI. 42 West 56th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19 USA www.MTIshow.com

OD COMPANY

EQS


THIS IS FOR YOU.



CRED

 [Instagram.com/MercedesBenzkr](https://www.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https://www.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https://www.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3.8km/kWh (도심 3.8km/kWh, 고속도로 3.7km/kWh)

1회 충전거리 478km, 공차중량 2,590kg, 배터리용량 107.8kWh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움미술관 고미술 상설전 M1

4층 푸른빛 문양 한 점

3층 흰빛의 여정

2층 감상과 취향

1층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

대모 감장 화문 빗

통일신라, 8-10세기

리움미술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04348]
www.leeum.org

LEEUM

특별한 순간, 뮤지컬과 함께

CHARLOTTE

T H E A T E R

샤롯 데 씨 어 터

샤롯데씨어터 티켓 예매 시스템, 알고 계신가요?



선예매

누구보다 빠른 예매
가장 먼저 티켓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판매 좌석

오직 샤롯데씨어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매할 수 있는
좌석들을 판매합니다



오페라글라스

공연을 더 생생하게, 감동을 더 크게
샤롯데씨어터 홈페이지에서
오페라글라스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권기

긴 대기줄은 이제 그만!
티켓 창구에 비치된 회원 전용
무인발권기를 사용해 보세요



풍성한 혜택

샤롯데패키지 등 특별 상품 구매부터
포토 티켓 이벤트 까지! 매 공연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eyond the best theater.

Since 2006



2021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 더 바로크 나이트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